

#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일본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

‘자유·미래·번영·위기’ 키워드

“미래 준비 못하면 불행 반복”

강제동원 등 과거사 언급 없어

이재명 대표와 대화 없이 악수만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에너지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개최된 ‘10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작년 5월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10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전면내내 세운 키워드는 ‘자유·미래·번영·위기’였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와 심각한 복합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

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당대에 독립을 상상할 수 없었던 칠축같이 어두운 시절,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추선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여야 지도부, 사회 각계 대표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자리했지만, 입장 때는 별도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만세 삼창’과 함께 기념식이 끝난 후 퇴장하다가, 국민의힘 권성동·윤상현 의원 등과 악수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 정진석 위원장은?”이라고 말하며 여야 지도부 자리로 향했고 정 위원장, 이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과 짧게 악수를 했다.

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 대표에게 악수를 청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대면한 것은 지난해 10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이후로 처음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참석자들과 차례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철수 “대통령실·비대위 불공정하단 느낌은 나만의 피해의식인가”

“김기현 공갈연대, 사실인 것 없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1일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 등과의 연대를 부각하는 것에 대해 “공갈 연대, 공갈 지지”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김 후보의 연대는) 사실인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공갈 연대’ 이런 표현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가 고심 끝에 전대 출마를 접은 나 전 의원, 예비경선 경쟁자였던 조경태 의원에 이어 윤상현 의원과도 지지를 약속받고 연대를 맺었다고 전날 밝힌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

안 후보는 전날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와 동행한 나 전 의원에 대해 “집단 린치를 당하고 강제로 전당대회에서 사실 퇴출된 것”이라며 “어제 표정도 억지로 끌고 나온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상현 의원의 경우 본인이 연대하지 않았으면서 중립을 지켰는데 그런데도 (김 후보가) 계속 팔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처음에는 스포츠스타(김연경 선수) 시즌1, 다음에는 나 전 의원 시즌2, 윤 의원 시즌3, 바른정당 전 당협위원장 출신들 시즌4까지 이중 사실이 거의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본인만의 경쟁력을 묻는 말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답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봉사하고 재산 절반을 기부하는 후보가 우리 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누가 있나”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 투기를 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면 끝난 문제이지만, 기본 중의 기본인 명감조차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전당 대회는 여러모로 낯설다. 대통령실·비대위·선관위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피해의식인가”라며 전당대회 공정성 문제를 언급했다. /연합뉴스

## 천하람 “김기현과 결선 200% 확신...안철수가 레드카펫 깔아줄 것”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1일 “천하람과 김기현의 결선을 200% 확신한다”며 “안철수 후보님이 제게 레드카펫을 깔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천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제게 부족한 건 어찌 보면 대선주자급 인지도와 중량감인데, 이걸 제가 안 후보를 꺾는 순간 다 해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죽 썩서 천하람 준 전대’라

며 “결선이 없었다면 안 후보의 인지도에 가려서 제가 주목을 못 받았을 수 있지만, 결선 덕에 소신투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하람 돌풍이 안철수를 꺾는 순간 민심이 태풍이 된다”며 “당원들에게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김기현 후보는 45%쯤 받고 2등 하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안 후보에 대해 “요 며칠 사이 개혁 성향으로 바꾸시는데, 이미 ‘개혁의 천하람’ 대 ‘구대의 김기현’ 구도로 재편

이 끝나서 우물쭈물하다 제 발에 걸려 무대에서 떨어지신 형국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에 대해서도 “윤해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당 조직의 80% 정도, 온 우주가 도와주는데 70~80% 지지율은 커녕 과반도 못하는 것은 김기현 리스크가 작동하는 것”이라며 “어제 대구에서 ‘김나연 대(김기현-나경원 연대)’를 띄우는 것도 초조함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강제 복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문 전 대통령은 관여 안 했다 판단

‘탈북 어린 강제 복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지난 2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린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의 공소장엔 강제 복송 방침이 서자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해 조기에 종결도록 한 혐의가 포함됐다.

북한 어린 2명은 2019년 11월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납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2새 만에 복송했다.

검찰은 노영민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가 열린 2019년 11월4일 강제 복송 방침이 결정됐다고 봤다.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의용 전 실장이 의사 결정을 주도하고, 국정원과 통일부가 그 뜻에 동의해 복송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 어민을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연합뉴스

## SGI서울보증

#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 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하게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